

민군관계와 국방리더십의 발전방향

손 수 태*

목 차

- I. 서론
- II. 민·군관계의 변화 : 이론과 실제
- III. 현대군대의 성격변화
- IV. 국방리더십의 발전방향
- V. 결론

I. 서론

과거의 민군관계이론은 민과 군의 영역을 구분하여 정치·사회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적 관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기능 면에서 군대만이 전쟁을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으로 보고 민과 군의 영역을 二分法的으로 나누어 보려고 했으며, 둘째 근대화초기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정치에 대한 군사개입이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민군간의 관계를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갈등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관계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양상이 억지(抑止)중심의 전략과 기술 중심의 하이테크전으로 전개되면서 민과 군의 협력적·유기적 통합이 중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직업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은 국방조직은 이제 더 이상 정치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리더십면에서 볼 때 국방조직으로서의 군대는 근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으므로 군대조직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전 평시를 막론하고 굳건한 사회적제도로 자리 잡은 국방조직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본래의 기능적 측면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리더십에 머물 수만은 없다.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에 의하면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군사적 제도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는데, 그 첫째는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오는 기능적요구와 둘째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힘, 이념, 제도 등에서 오는 사회적 요청이다(Samuel P.Huntington,1957:2). 과거와 같이 未分化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요소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한가지요소 즉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요구로 군대를 편성하였다가 전쟁위협이 별로 없을 경우 군대를 해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군대의 리더십은 고유의 기능적 측면만을 고려한 리더십이 전부일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안보의 개념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개념보다는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억지의 개념이 지배적이며 국가의 안보는 국방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개념에서 위협을 상정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이문조·손기웅·1995).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관리가 과거의 정부독점에서 벗어나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체제인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운영되면서 국방관리도 사회 통합적이고 역동적인 개방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소위 민군융합적인 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민군관계의 요구는 무엇보다 리더십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방리더십의 변화는 새로운 민군관계의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군관계와 국방리더십은 상호침투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민군관계의 변화와 현대군대의 성격변화를 확인하고 그 바탕위에서 민군관계와 국방리더십의 연계논리를 논의하면서 국방리더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범위는 주로 민군관계의 측면에서 국방리더십을 논의하되 그 범위는 정부차원의 군사지도(軍事指導)에서부터 군사지도자들 차원의 사회 통합적 리더십의 원리를 그 대상으로 한다.

II. 민·군관계의 변화 : 이론과 실제

1. 정치적 민군관계의 변화추세

과거 민군관계 이론은 주로 정치학적 차원에서 민과 군의 관계를 군부엘리트와 민간엘리트간의 권력관계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분석이 주류를 형성했다. 소위 ‘지키는 자 자신을 누가 지킬 것인가?(Who guard the man on the horseback?)’ 라는 고전적 명제¹⁾

1) 로마시대 Juvenal의 시에서 유래되었음, 로마제국의 전성기부터 군대가 대외적인 전투를 할 필요가 없게되자 공복(公僕 Servant)의 역할에서 점차 부패하게 되었다 로마제국의 요직을 차지한 왕실경호대(praetorian guard)와 지방군은 정치권력에 개입

와 함께 민군관계의 이론은 주로 군부에 대한 민간(국가)의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군부의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민간통제(Civilian Control)란 간단히 말해서 직책과 권한을 가진 민간인 또는 국가의 민간기관이 군을 통제한다는 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행정부의 수장 및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군을 통제하고, 민간인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부와 군을 지휘·관리하며 : ②군대는 입법부와 행정부등의 민간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 ③민간적 가치(Civilian Values)가 군사적 가치(Military Values)에 우선하며 . ④군대의 존재목적과 범위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윤중호, 2005·25-26).

이러한 민간통제의 원리는 공식적 리더십의 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통제제도는 시대상황과 국가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 나라별로 볼 때도 특정 국가는 상비군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와 군인들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자의 경우는 민간통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후자의 경우는 민간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민간통제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자 상호관계(relationship)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과 기능수행과정이 민간통제유지를 좌우한다(윤중호, 2005:26).

또한 제도가 아무리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국의 경우 민간통제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정권에 따라서 군부의 태도나 민군관계의 현주소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측

하여 이른바 무정부 시대를 출현시켰고 특히 용병적 근성이 강한 왕실경호대는 뇌물을 받아먹고 제위(帝位)를 농락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정치적 명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면에서 국방리더십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 정치적 측면에서 국방리더십은 노르딩거(Eric A. Nordinger)의 민간통제유형이 참고가 된다. 노르딩거는 군대의 정치개입이 민간 정치가와 군인간의 갈등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의 유형을 전통형, 민주형, 침투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민주형이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다(Eric A. Nordinger, 1977 : 11-12).

전통형 민간통제(Traditional Model)는 17세기 및 18세기 유럽의 군주정치시대 민간통제 형태로서 당시유럽의 귀족정치는 귀족이 곧 장교가 되었고, 민간엘리트와 군 엘리트의 출신성분, 배경, 관심사항등이 일치함으로써 군대의 정치개입이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유형은 민·군 엘리트가 직업적으로 확실히 구분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침투형 민간통제(Penetration model)는 민간인지도자가 정치적 아이디어 및 정치요원을 군대내로 침투시킴으로써 군대의 충성과 복종을 얻어내는 민간통제형태로서 개인독재체제나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일당체제와 같이 단일지배 권력중심을 가진 정치체제하에서만 적용 가능한 형태이다. 따라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현대국가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민주형 민간통제(liberal model)는 군 엘리트가 군사적 전문성(expertise)과 책임성(responsibility)면에서 민간엘리트와 구별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민간인은 국가의 대내외 목표를 설정하고 법 준수를 감독하며,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장교는 무력을 관리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내부의 폭력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이유형에서 군인은 민간인 우위의 권위를 인정하고 민간통제의 직책을 수용하는 반

면, 민간인도 군을 배려하고 존중해야한다는 것이 민간통제유지를 위한 기초가 된다. 즉 민주형민간통제하에서는 군대가 최대한 탈정치화 되지만, 민·군 간의 조화도 이에 못지않게 민간통제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Eric A. Nordinger, 1977:12-15).

전통적인 군 직업주의를 강조한 Huntington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군사적 고려사항은 정치적 고려사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군사적 기능의 융합(Political-military fusion)이 앞으로 미국의 對軍접근방법의 새로운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Samuel P. Huntington, 1957:351).

전쟁의 형태가 총력전의 형태로 변함은 물론 전쟁억제를 위한 총력방위의 개념이 국가안보정책의 핵심을 형성하면서 복잡·정교한 전쟁기획과 전력의 형성·운용 등 군사력의 통제된 사용 틀 내에서도 민·군 간의 민감한 정치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의 최고수준에서 국가안보분야의 관련자원이 확대되고 복잡성 및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하에서 질 높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직업적의견반영이 요구되므로 군인들의 적절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Donald F. Bletz, 1971 12).

2.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민군관계 변화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국민군으로 근대화된 군대는 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많은 현대전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하게 조직되고 정예화 된 상비군(常備軍)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미분화된 상태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군대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중요한 정치변동의 세력이 되

었다

이러한 군대집단의 영향력증대로 사회학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군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으로 구별되었다.

먼저 긍정적 관점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감안한 군대역할의 불가피론으로, 개발도상국의 군대가 왜 근대화추진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가를 군대조직의 특성 및 장교단의 성격을 들어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확산된 계기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팽창되면서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공산 반란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군대를 활용 가능한 이상적인 체도로 인식하면서부터였다(J. P. Lovell, 1971:161).

1939년 미국의 都市委員會가 개발도상국 군부 엘리트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당시 랜드 연구소 소장이었던 한스 스페어는 '신생국의 군부가 구 정치 질서를 개편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신생국이 공산주의의 재물이 되는 것을 저지해 왔으며, 또한 근대화 추진 세력으로서 사회변화를 갈망하는 중산 계급과 대다수 국민 요구의 대변자적 역할을 하고 행정능력과 과학기술이 낙후된 民間 部門에 기술을 제공해 왔다(오라툰데 오데틀라/고려대정치외교학회, 1990.86)고 주장하였으며, 1960년대 포커(Guy Pauker), 헬퍼른(Manfred Halpern) 파이(Lucian Pye), 존슨(J. J. Johnson)등의 연구에 의하여 이러한 이론이 구체화되었다. 특히 파이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군대는 근대적 조직체로 성장하여 그 사회에서는 가장 근대적 기술과 합리적인 사고를 보유하게 되었다. 군대는 민간 관료보다 외부 세계에 눈을 돌려 자국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조직보다 近代化와 效率性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 현실과 다른 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유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자각과 적극적인 대민활동으로 정치적·경제

적·사회적 근대화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ucian W. Pye, 1964:69-89).

한편 부정적 관점은 여러 나라에서 군사쿠데타의 후유증이 심각했던 1960년대 이후에 제시된 견해로서, 군대는 사회의 발전이나 근대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군대의 근대화역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의 대표적 학자로서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웰치(Claude E. Welch) 머레이(Roger Murray), 쿠리(Fuad Khuri)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견해는 대부분 근대화와 사회변동에 대한 군의역할에 대하여 기껏해야 민간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정도이거나 그것보다 못하다는 주장이다.

즉 군부는 기본성격상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이어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의정치참여는 근대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군부정권하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여 관료집단 내에 또 다른 형태의 비능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통성(正統性)의 문제로 전반적인 불안정을 초래하여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김경동, 1984:37).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대부분의 기존관점들은 군대와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치적 관점에서 단순화하여 양분법적·정체적 시각에서 보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군대의 역할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군대와 사회를 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전체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군대조직은 거대한 사회조직에 비해서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과 기술에 의존하는 조직이다(Morris Janowitz, 1974:28-40)

더구나 탈냉전과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의 경계

와 권력은 약해진 반면 각 분야의 상호의존성, Dynamic한 교류(交流)등 리더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의 공적기구는 이제 거대한 시민사회와의 존재양식을 어떻게 할 것 인가 고민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과거 국가주의 시대의 권력관계인 감시·감독적 이고 외재적(外在的)관계가 아니라 국가는 사회체제의 자율적 역동성(力動性)을 불어넣고(empowering)살리는 內的역할관계를 키우고 시민사회와 동질화(同質化)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발전되고 있다(김번웅·김동현·김판석, 1997 34). 따라서 국방리더십도 군인들이 그들을 고용한 시민사회의 변화를 읽고, 사회의 제요소(諸要素)들과 상호 협조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군대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군사기술이 과거와 같이 지역별로 폐쇄되고 정체되었던 사회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된 세계적 경쟁체제에서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학화된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혁신을 위해서도 더 이상 군대를 사회와 동떨어진 조직체로 격리시킬 수 없다.

Ⅲ. 현대군대의 성격변화

국가간의 경쟁에서 국제체제의 의미는 전통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즉 각 국가마다 국가이익을 추구하기위한 행위를 할 것이고, 전쟁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군사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전쟁수행방식은 다르더라도 전쟁의 영속적인기반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권재상, 2001). 여기서 논의하려는 것은 군대의 본질적인 기능

적 측면이 아니다. 군대조직의 외부환경변화와 함께 조직의 기술과 문화를 중심으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군대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민군관계와 국방리더십의 발전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1. 민간화 현상 : 민군융합적 처방

사회학자들은 현대군대의 성격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민간화 현상을 들고 있다(Morris Janowitz, 1974:34-35).

현대전이 국가총력전체제에서 수행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전수행을 위한 군대관리의 복잡성은 민과 군의 경계를 점점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현대전수행에서 민간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는 미국의 예에서 들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걸프전에서 민간인의 비중이 100 1이었는데 비하여 이라크전에서는 10 1의 비율로 민간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Sheila Suess Kenndey · Laura S.Jensen, 2004).

현재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군사회사는 180개가 넘고, 민간군사회사에 고용된 전쟁대행요원들도 15,000명이 넘고 있는데, 이들의 임무도 과거전투병이 수행하던 임무인 군수품 보급, 시설경비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및 정찰 등 전투지원 임무를 포함하여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조선일보, 2005.4.7) Janowitz는 현대군대의 민간화현상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현대국가는 군사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정밀타격 · 대량파괴 무기가 고도로 발달하여 파괴와 살상의 위협을 군대나 민간이 똑같이 느끼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개념도 폭력사용 그 자체보다는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억지하는 것을 전략의 핵심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

은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구별 없이 되었고,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한 민군 융합적 대처방안이 요구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방리더십이 국방 분야만 한정해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식기반사회의 정보·기술군 : 조직적 변화

Alvin Toffler는 정보화 사회를 지칭하는 제3물결시대의 전쟁형태를 하이테크 전쟁이라 했는데 이러한 형태는 최근미국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전쟁의 형태나 각국이 지향하는 군사혁신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사회의 부(富)가 지식기반으로 형성되듯이 오늘날의 군대는 지식기반 즉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쟁수행방식을 혁신해가고 있다. 과거의 군대가 병력 수에 의존했다면 오늘날의 군대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와 지식의 결합 특히 전술과 과학, 공학의 결합으로 전투와 훈련 등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면서 군대가 지식기반사회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의 모습은 민간과 군대에서 동시적 설계(Concurrent Engineering)로 그려지고 있다.

새로운 전장설계는 군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군인, 과학자, 기술자, 정치가, 산업체근로자등 모든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식과 기술 중심의 리더십은 민군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민과 군은 인적자원, 물적 자원, 지식과 기술 등에서 상호간에 적합한 교류가 필요하다.

3. 군복 입은 시민 : 군인의 정체성

현대사회에서 군인의 정체성은 '군복 입은 시민'으로 정의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Citizen in uniformed)'으로 규정하고 제복 입은 시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으로서 자기의 조국을 기꺼이 수호하고 타인의 인간존엄성과 자유를 위하여 공동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모델로 상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군인의 사명을 완수하기위한 군 조직 내의 질서원리와 기능원리를 민주법치국가의 자유원리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의 군인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수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Das Militarische Wei buch Deutschland, 1994).

미국의 경우도 시민정신을 미국군인들의 이상적인 정신요소로 삼고 있다. 「미국장교지침서」에는 '장교로 임관된 사람은 미국시민으로서의 기본성격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미국의 생활원리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열망이 바로 미국군인정신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다(육군사관학교, 1983 3-5). 동구권이 구소련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동구권 군대가 직면한 가장 큰 리더십 문제는 바로 민군관계와 군인의 정체성문제로 이어지면서, 군인각자가 시민으로서의 자기위치를 확인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민주국가에 적합한 통솔법 개발이었다고 한다 (Jacob W.Kipp · Peter J.Podbieski, 1992:33-35, 1990:72-73).

이와 같이 민주시민사회의 국방리더십 근원은 모체사회(母體社會)의 생활원리 즉 시민정신에서 비롯된다. 현대군대는 모체사회에 융합되도록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 통제 패러다임이 아닌 시민사회의 자율적 가치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일수록 군 리더십과 문화

의 발전은 시민 사회적 가치와 문화의 패러다임을 깊이 인식하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만약에 군대가 사회적 패턴의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는 독립적으로 기형적 성장을 계속할 때, 스스로를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도록 하는 위험과 함께, 대중의 지지나 정치적 지지를 상실하여 더 이상 좋은 자원으로부터 매력을 끌지 못하고 군의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²⁾

군대는 더 이상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얼어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David chuter, 2000).

군인의 정체성을 군복 입은 시민이라는 민주시민성을 기본으로 할 때 현재 한국군대의 병영운영 메커니즘이나 병원관리실태는 기본원리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시민은 책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인을 군대사회화 하는 제도는 군인들을 전투와 직결된 행동양식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되어있고, 군인의 임무수행은 민간인보다 더 엄격한 Rule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병영이 수용소가 아닌 이상 민주시민사회에서 병영문화의 패러다임과 메커니즘 자체가 강압적 통제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의 임무수행 틀 속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개인별로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兵員)개개인도 시민으로서 기본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의료보험, 고용보험, 생명(산재)보험 등에서 국가의 법체계속에 포함되어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군대가 사회적 지지를 상실할 때 군입대자원의 소명의식(召命意識)이 결여되고 제대 군인들의 사회적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4. 전문직업주의 군대 : 사회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Daniel Bell이 후기 산업사회를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 하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적·과학적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창출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토지와 재산, 그리고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자본과 기술에 맞먹는 중요 요소를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전문적 지식에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식은 국력이자 개인의 부를 늘리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개방화·민주화의 시대를 열었고 세계화의 바람과 함께 정보화 사회가 밀려드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시아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매우 빨랐다는 측면이 있다.

정보화 사회의 개막은 다양한 전문직종을 전사하고 있다. 'N세대' 'P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감각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직종이 속출하고 있으며 전문 지식은 정보고속도로를 타고 천지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변화를 연출하고 있다.

군대의 전문 직업화도 이러한 사회 변화와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다. 군 전문 직업주의에 대하여 초기 이론가들은 주로 원리적인 측면을 강조해왔다. Huntington은 현대 군대의 특징을 “폭력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이다”라는 의미로 직업주의 발전을 강조했으며 Mosks는 군이 점진적으로 公共組織主義的(institutional) 유형에서 직업적(Occupational)유형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표 1> 과 같이 공공 조직주의적 군대와 직업주의적 군대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Huntington이나 Moskos의 이론은 군이 폭력의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이어야 할뿐 아니라 공공 조직적 군대에서 직업주의 군대로 그 특성을 상당부분 변화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한국군도 이러한 원리에는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대의 군 직업주의는 이러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군직업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타 직종과의 비교에서 경쟁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군직업주의의 환경인 우리 사회의 변화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

군이 사회발전 속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전문 직업화 되었다면 예비역들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비역들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고통은 적지 않다

직업군인 출신들의 전직율이 30%도 안 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한국군의 직업주의는 재평가 되어야 할 일이다.3)

- 3) 실제로 국가보훈처에서 집계한 98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복무 제대군인취업현황은 <표-2>와 같이 2,757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매년 전역인원 3,400명중 1,000명 이내 취업으로 30%도 되지 않아 취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며 또한 취업 직종면에서 볼 때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재향군인회등에서 알선한 군 관련 직종에 취업한 인원이 대부분이다

<표-2>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실시현황 ('98-2000)

계급별 알선기관	계	장 성	영 관	위 관	준·부사관
계	2757	37	1647	457	614
보훈처	239	-	56	17	166
국방부	1793(994)	20	1191(640)	415(354)	167
비기위	166	-	166	-	-
재향군인회	306	17	117	22	150
국방취업센터	253	-	117	5	131

※ ()안은 예비군 지휘관임

- 국방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복지단, 공제회 등에 장교중심 취업알선
- 비기위 각 부처 및 공기업 비상계획관 알선
- 향군 자체조직 및 산하 업체 알선

〈표 1〉 공공 조직주의적 군대와 직업주의적 군대의 특성

기 준	공공 조직주의적 군대	직업주의적 군대
합법성	규범적 가치	시장경제적 가치
역할수행	광범성(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기대됨)	특정성(특정화된 업무만 수행)
보상근거	계급 및 서열 중시	기술수준 및 인적 자원중시
보상양식	대부분 비금전적(부식, 관사, 피복, 의료혜택 등 형태이거나 전역 후 보상)	봉급 및 보너스
보상수준	입대자 봉급이 낮음 (민간임금)	입대자 봉급이 높음
거주지	군무처와 거주지 인접	군무처와 거주지 분리
배우자	군대 사회의 한부분 (군과 관련된 사회활동 참여)	군대 사회로부터 격리 (부대 내 사회활동 참여 기피)
사회적 존경	봉사의 개념에 따른 존경심	보상수준에 따른 위신
준거집단	수직적으로 조직화 (군조직 안에 존재)	수평적으로 조직화 (군조직 밖에 존재)
수행평가	총체적 / 질적(전인적 평가)	부분적/양적(특정업무 수행과 관련 평가)
법률제도	군법 적용	민간법 적용
전역후 지 위	예비역으로서의 혜택(정부 내 취업 및 자격 취득 등에 있어)	민간인과 동일

※資料 Charles C, Moskos, "From Institution to Occupation Trends in Military Organization", *Armed Forces & Society*, 4 (Fall, 1977), pp 41~50 and "Institutional / Occupational Trends in Armed Forces an Update", *Armed Forces & Society*, 12 (Spring 1986), pp 377~382.

- 국방취업센터 '98년부터 군복무자 알선(장기복무자만 집계)
- 보훈처 . 1일 20인 이상 고용업체 (제조업은 200인 이상) 고용명령 실시

전문 직업주의는 자기 앞만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전체 사회 속에서 타 직업과 비교해서 경쟁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타 직종으로 전환할 때도 교환 가능한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물론 의사와 같이 특수기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환이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군 직업은 의사·변호사와 같이 평생 불변하는 직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중기복무 내지 단기복무자에게 군 직업은 거쳐 가는 직종일 뿐이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은 전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반 사회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윤리적 가치관⁴⁾을 지녀야 하고 전투와 관련된 특기가 사회와 교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군 요원들이 군대 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때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또는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팽개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가 군인이란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현역이나 예비역 공히 군직업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에는 모두가 시민이면서 직업인이다. 직업인으로서 인간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으로 표현될 만큼 능력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개발을 위한 관리가 사회적 합의하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은 직장에서 퇴직이란 말 대신 전직(Replacement)이란 표현을 쓰고 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회사자체는 물론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군인이면서 시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능력을 계발하여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군 직업주의를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군 직업주의는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직업 환경

4) 전쟁 상황에서 불특정이방인 전체를 죽이는 전쟁의 규범이라든가 죽이기 위한 훈련 등은 일반사회의 윤리와 규범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David Chuter (2000)

의 변화를 읽고 이러한 변화를 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적용하여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전력개념의 변화와 조직개념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즉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직종의 변화는 무기체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무기체계의 발전은 전쟁 수행방법의 변화를 포함한 군사분야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조직혁신을 포함한 군사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군사 분야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이러한 기술의 상호 의존적 통합이 문제해결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현역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직업인들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현대의 국방은 현역과 예비역을 포함한 군사 분야 전문직업인들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와 기술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민간 사회와 다양한 협조 Network를 형성하여,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IV. 국방리더십의 발전방향

1. 민간통제의 리더십 발전

정치적으로 민군관계의 쟁점이 과거의 군부쿠데타와 같은 높은 수준의 문제(high issues)에서 정책현안 중심의 낮은 수준의 문제(low

issues)로 전환될 것임은 확실하다(윤중호, 2005)

그러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또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민·군간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나 갈등요인 도는 정치적 불신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사문제에 관한한 민간인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민간인 정책결정자들의 군사전문성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민·군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문제이다. 민간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군을 보는 시각이 정치적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사람 심기 등 정치적 시각으로 군을 통제한다든가 군 조직에서 정치권 눈치 보기 등으로 군 본연의 자세를 저해하는 등 국가공식기구를 통한 민간통제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국방 민간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다. 현대전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자원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과거 ‘국인에 의한 국방’의 개념에서 민·군융합적 개념인 ‘국민의 의한 국방’의 개념으로 그 차원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국방부 본부는 국방행정의 영역을 국가전체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군과 민의 중간영역에서 국방관리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국방민간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부서와의 협력적 정책과제를 발전시키고, 타정부부서의 정책과제에 적극참여함으로써 국가행정체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Governance시대 공공분야의 경영은 자기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정 전 분야에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적 Network체제에

5)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생명)보험, 평생교육제도 등에서 최초국가정책형 성과과정에서 국방부와 정부부서간의 협력적 mnd가 부족하여 단기복무 장교·사병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해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방조직 및 군사력건설, 국방예산, 고용정책, 국가차원에서 국방교육, 홍보, 정부부서간의협력, 국회에 대한 책임 등 국방행정 전 분야에서 국방민간 인력이 주축이 되어 국가경영에 참여하는 국방행정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정부의 군사전문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군의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민간인이 군사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 전문직업인(military Professional)으로서의 장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필요할 때 군인을 불러서 보고를 받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 등을 정하여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통제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군대는 단순히 현직 대통령 개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조직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한 복종의 책임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사법부에 대한 복종은 법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Kohn, 145).

2.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군의 선진화

군·사회관계에서 국방리더십은 군과 사회에 모두 유익한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군대 내에서의 리더십은 군 요원들의 사회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⁶⁾

6) 사회화(社會化)의 개념은 인간유기체가 출생한 후 사회적으로 인정된 이념, 태도, 행동양식 등을 사회환경과 상호교섭을 통하여 학습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김영중, 사회학개론, 1990) 사회화는 또한 한 사회 속에서 문화가 전승되고 개인이 조직화된 사회생활양식에 적응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커가는 과정이다 (이장현 외, 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82, p104)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군대생활은 개인의 한생애에 있어서 청년기의 중요한 사회화

‘남자는 군대에 갔다 와야 남자답게 된 다’ 또는 ‘군대에 갔다 와야 사람이 된 다’는 사회적 통념은 사회화기관으로서 군대조직의 역할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군대는 적극적으로 사회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회적 가치들을 수용하고 군대에 맞는 리더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개별군인은 군 생활을 하면서 군사적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간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지휘관은 군사적 임무와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 간에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조정하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군대의 지휘통솔원칙인 ‘내면적 지휘통솔(Grand-sätze der Innere Führung)’은 독일군의 지휘통솔, 내무생활의 원칙이 되었는데 이속에는 독일사회가 중요시하는 사회적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원리들을 모두 수용하여 군 조직을 관리하는 지휘원리로 내면화하고 있다.⁷⁾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7) 독일군의 지휘통솔원칙인 innere Führung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군인은 권리를 자신의 뜻대로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복 입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즉, 군대는 사회의 일부이며 군인은 사회적·정치적 생활을 함께 영위한다)
 - (나) 군인은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적 指導가 군사적 指揮보다 더 優位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다) 군인은 국가와 군인이 상호 신뢰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라) 군인은 평시의 근무도 전시를 대비하여 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마) 지휘관은 책임 의식과 능동적인 협조 자세를 고취하고 유지하며 심화시켜야 한다
 - (바) 지휘관은 임무 부여 원칙에 따라 부하에게 업무를 맡겨야 한다 (즉, 지휘관은 부하에게 목표를 제시하여 부하가 독립적으로 또 스스로 책임을 지게끔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하에게 임무를 부과할 시에 반드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 (사) 지휘관은 마지막 모든 결정을 내릴 시에 부하들의 요구를 배려해야 한다 (즉, 지휘관은 부하들의 복무 요구와 개인적 요구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휘통솔원리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부여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군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무수행도 자율 메커니즘에 의해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병사들에게 시민의 신분으로 군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의 4대 보험 혜택을 누리 수 있게 한다든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은 군 차원을 넘어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선진민주주의군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휘관과 부하관계에서 특히 부하의 능력을 배려하고 임무를 부여하며, 부하가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기취향에 따라 부하를 길들이는 것은 부하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에 관한한 지나치다 할 정도로 구체화하고 안전에 관한원칙은 인간존엄성측면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군대의 리더십은 사회전체에 통용되는 보편성과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 군대의 언어(용어)와 행동양식 등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을 정도로 고질적인 특성을 지닐 경우가 있는데⁸⁾ 이는 바람직

(아) 지휘관은 부하들의 임무와 잘 연관시켜서 훈련과 정신교육 및 군사교육을 시켜야 하며, 또한 이때 부하들이 주어진 업무를 감내해 낼 수 있을지의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자) 군인들은 잘 보존되어 온 군인의 미덕(덕성)과 체험을 물려받아 이를 보존 전승시켜야 한다 ※ 자료근거 Informationsmappe Zuur Innere Führung in der Bundeswehr(Bonn Fus12, 1990)

한 현상이 아니다. 군조직의 목적상 특별히 요구되는 상징체계⁹⁾를 제외하고 군인의 모든 윤리와 언어·행동양식은 사회적 보편성 즉 사회적 관습과 도덕률을 바탕으로 규범화 되어야 한다. 또한 군대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방체제를 유지해야한다 군사적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¹⁰⁾를 제외하고 사회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¹¹⁾와 시설들에서 개방체제를 견지함으로써 양질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군대상’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군·사회관계의 적합성(adaptability) 발전

Chuter는 ‘현대사회에서 군대는 냉장보관 했다가 전투지역에 보내는 것처럼 군사작전에만 제한될 수 없다’(David Chuter, 2000)하여 사회적으로 군대의 유용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군이 전쟁수행이라는 기본적 임무를 제외하고 사회에 적합한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현대군대의 바람직한 생활양식이 되었다.

사회적제도로서의 군대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민간부문과 다면적 교류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군대는 특히 교육적 역할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전통사회에서 교육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 담당하였으나, 다원화된 개방사회에서는 교육의 시·공간이 확장되면서 학교밖의 각종사회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사회교육이라 한다면, 군대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8) 과거군대용어의 예로서 장갑을 ‘수갑’이라고, 상급자의 묻는 말에 고함만 지른다든가, 하급자에 대한 괴상한 폭언(비하언어)과 가혹 행위등 잘못된 행동양식들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질적 특성이다

9) 예를 들면 의식행사 등에서 요구되는 상징체계가 있다

10) 핵심군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훈련장(사격장)에 철조망을 높이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11) 예를 들면 모집(징집)업무나, 사회교육지원(시설견학), 전화·인터넷 서비스 등

적합한 조직이다.

따라서 국방리더십은 군대가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의 경우, 군대교육의 표적 집단(target group)인 사병은 고정된 인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인력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인력의 대부분이 군대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인구의 특징적 측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인원은 곧바로 사회 각 분야의 생산적 기능을 수행할 청년인력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주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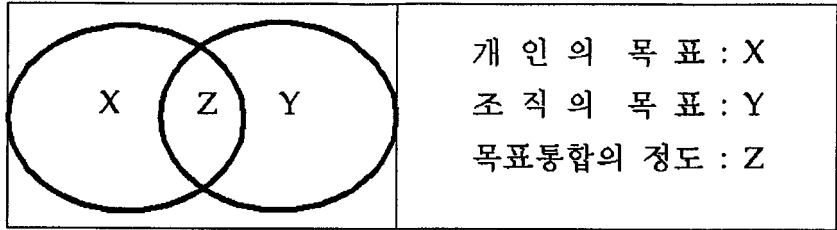
국방교육의 역할은 국방환경의 변화와 사회직업 환경변화등과 맞물려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방환경은 이제 세계적 범주에서 안보상황이 불확실하고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체계의 혁명적 진화로 민간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첨단지식과 기술 등을 수용하여 항시 효율적인 군사력건설 및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는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의 경쟁이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면서 국가적으로 제대 후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군 인적자원 개발요구와 함께 장병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개발에 대한 요구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인적자원기본법을 제정(02.8.26)하고,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군 공동 학술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기구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¹²⁾

군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리더십측면에서 볼 때, 조직관리를 위한 목표통합의 원리와도 연계된다. 개인의 목표 또는 욕

12) 육군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학술연구 협약을 체결(035)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세미나·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등을 거쳐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을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의제(議題)로상정(05 7)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의「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군 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와 조직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조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는데,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조화·통합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양자간의 경계연신작용(境界延伸作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에서 보면 그림1에서와 같이 X를 개인적 욕구 또는 필요성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일련의 상태 또는 활동이라 하고, Y를 조직의 주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일련의 상태 또는 활동이라 할때, Z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요구를 함께 충족시켜주는 상태 또는 활동의 부분을 의미한다고 본다.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시키는 통합 모형(integration model)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오석홍, 1990:167-171).



〈그림 1〉 목표통합의 의미

① 목표양립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조직 사이에 거래협상의 관계로 조직은 개인에게 개인적 목표의 성취에 도움이 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개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시간과 정력을 조직의 목표 성취에 바치는 교환모형(exchange model) ②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감화의 과정(influencing process)을 통해서 목표 통합을 이룩하려는

교화 모형(indoctrination model) ③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추구의 방법과 절차를 입안함에 있어서 개인적 목표(개인의 욕구체계)를 고려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처방하는 수용모형(accommodation model)을 들 수 있는데, 군대조직의 경우는 두 번째의 교화 모형이 적용되는 조직으로 볼 수 있지만, 조직을 운영할 때 수용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도록 배려할 수 있고, 군대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군 복무가 사회와는 단절된 인생의 공백기 내지 허송세월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4.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발전 : 사회 통합적 리더십

세계는 지금 리더십의 분위기에 많은 변화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세계화, 상호의존성 등으로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경쟁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특성을 지닌 진부한 리더십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Jean Lipman-Bluman, 1996).

다양성이 독립·분리주의 및 개인의 주체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상호의존성은 제휴·협력·상호관계 및 통합을 지향한다. 복잡한 Network으로 통합되면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은 리더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점점 짧아지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진리프먼블루먼/김양호·이승영, 1997.23-24).

이러한 리더십 환경변화는 군대라고 해서 무관할 수 없다. 군대가 전쟁을 위한 도구로서 동원되었다가 전쟁이 종료된 후에 해산되

있던 시대와는 리더십차원을 달리한다.

현대의 군대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방체계이면서 전체사회에 통합되는 부분사회이다. 따라서 군대의 리더십은 사회의 리더십변화에 맞게 변화하면서 발전해야 한다. 물론 군대의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전쟁수행능력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등 초자아적인 정신적요소를 강조한다든가 임무수행과정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집단적 노력과 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등 군대만이 갖는 리더십특성이 있지만 임무수행 방법 면에서는 전체사회의 리더십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통합의 리더십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과거 보스적이고 개인중심적인 것에서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통제에서 통합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단선형(單線型)에서 Network 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군대의 경우 특히 복잡한 Hitech전장상황과 기술적 환경, 다원화된 전장 공간, 거기에다 속도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더욱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 단선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통합의 리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합을 추구한다. 지역적·분권적 통합, 자율적인 Network적 통합, 기술에 의한 Digital적 동시통합 등 다양한 통합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조직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유동적인 현대사회에서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군대문화의 특수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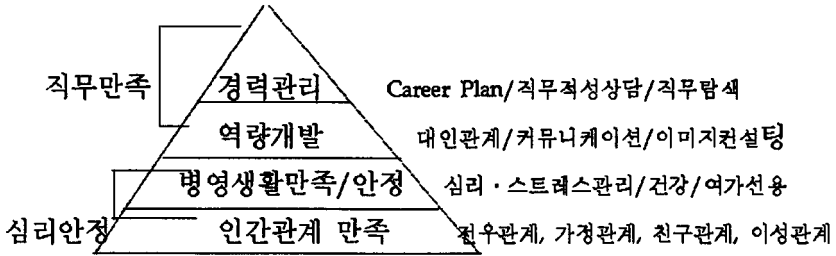
2) 상호관계의 리더십 : 쌍방향의 리더십

과거전통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일방적으로 리더의 비전을 추종자가 지지하는 일방통행식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쌍방향으로 정보의 흐름이 광속도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리더십은 조직적, 제도적, 체제적 관점에서 리더와 다른 리더 간 또는 리더와 구성원간에 상호간에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행동, 가치, 책임감이 공유되는 공동체를 창조한다. 특히 리더의 비전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고 구성원의 비전은 리더의 후원으로 이어지는 쌍방향의 흐름으로 리더와 구성원의 비전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3) 조직원의 성장을 도와주는 배려의 리더십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 ‘정체의 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텅빈 시간’으로 인식하는 한국방을 위한 자발적 헌신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식의 군 생활이 되기 때문에 전투력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병사들을 부대임무수행을 위한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라는 단순한 범주에서 벗어나 간부와 같은 시민으로 그들의 의식과 행동이 사회와 가정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유명덕 교수는 <그림 2>와 같이 병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특성, 장점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재적소의 보직을 주며, 짧게는 군대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게하고 나아가 전역 후에는 사회생활을 군복무라는 단절감 없이 바로 적응 또는 연계 시켜주는 경력관리로 병사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글로벌하모니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유명덕, 2006.49-58)



〈그림 2〉 병사들을 위한 군의 글로벌하모니 프로그램

5. 사회문화와 군대문화의 조화

군대조직에서 개인은 군인신분으로서 군사적 의무와 자유시민 신분으로서 자유와 권리 간에 긴장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군 지휘·통솔과정에서 해결해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군대의 리더는 군사적임무의 요구와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 간에 발생하는 긴장관계를 조정하여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가야 한다(손수태, 1998:101).

더욱이 일반사회의 자유주의적사고와 다양한 가치체계를 경험한 신세대들이 군대에 들어와서 민과 군의 대립적 가치들을 경험하면서 겪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와 군대문화의 조화는 국방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군대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원숙한 장교가 생각하고 결정할일은 민·군 간의 모순된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과 군의 대립적 가치들을 〈그림 3〉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그림 3〉 對立的 價値의 內容

자유주의적 가치 (Liberal Thesis)	군사적 가치 (Military Thesis)
1) 권위에 대한 회의 2) 자유 3) 다양성 · 독자성 (기존 가체체계에 대한 회의) 4) 주체성 (개인의 가능성 추구) 5) 의문과 회의 6) 검소 7) 복합성 · 다양성 8) 건전한 정신 9) 내적 확신의 추구 10) 상상력 함양 11) 대리적 경험 12) 판단력 13) 내심에서 우리나라의 의무로서의 책임	1) 권위에 대한 복종 2) 질서 3) 통일성 · 획일성 (기존 가치의 수용) 4) 종속성(전체이익을 위한 개인의 주체성 상실) 5) 자신과 확실성 6) 금지 7) 단순성 · 통합성 8) 건전한 육체 9) 의무를 강조하는 예절과 태도 10) 습관적 실행의 우선 11) 실천적 경험 12) 충성 13) 외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책임

※ 자료 · Headquarters of Department of U.S. Army, A Review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officers (RETO), (Washington D.C., June 1978). pp 111~114 유재갑, “軍의 엘리트化와 敎育” 「국제문제」, (1984.1), 26쪽 참조

사회문화와 군대문화의 조화는 한국군의 군대문화가 한국사회의 일반문화의 부분문화(部分文化)내지 하위문화(下位文化)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정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군대는 군대 나름으로 집단적 특성과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사회제도로서의 조직이지만 사회와의 관계에서 결코 이단집단(異端集團)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인 군대는 군인각자가 훌륭한 시민과 교양인으로서 어느 조직 어느 계층과도 화합할 수 있어야 하며, 원만한 인격을 갖춘 올바른 군인상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와 조화된 군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생활문화를 발전시켜야한다. 구체적 실천방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적인 생활체계 확립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문화가 크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는 병영생활 전반에서 최대한 자율메커니즘을 확장해야한다. 임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훈련과 내무생활과정에서 강압적 방법에 의한 수동적 행위체계보다는 스스로 자기임무를 판단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자율적 행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 개성과 병영문화의 통합

인간중심의 현대사회는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개성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군대는 기본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젊은이들의 이러한 개성문화가 병영문화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완상 교수에 의하면 ‘청년문화는 한 사회의 부분문화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문화로서 다양한 부분문화의 기수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문화와 다른 부분 문화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서 건전한 청년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침없이 활용하고 이와 같은 유산을 계속 발굴해 내야할 것이나, 추한 한국인의 성격을 형성시킨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유산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완상, 1991.169-170).

신세대들의 문화적 특성은 군대조직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세대들이 지니는 합리성에 대한 강한 동기는 합리화와 효율화의 강한 추진력이 될 수 있

으며,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일에 대한 집착과 열정은 현대적 군대의 전문성과 기술적 요구에 적용시킬 경우 강한 전투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신세대들의 특성 중에서 공동체적 삶보다는 개인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나 단결심·희생정신 등의 부족은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평적 가치관의 팽배로 수직적 관계를 단절하려는 특성 등은 병영생활에서 계층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군대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신세대 문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 문화의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군대생활은 집단생활이므로 자칫하면 집단생활의 나쁜 관행 예를 들면 피동성, 무사안일성, 의타성 등에 젖어 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분위기에 쉽게 동조해 버릴 수 있다. 또한 계층 구조에 의한 권위주의 문화와 二分法的 사고에 젖어 구타, 가혹행위 등에 의한 살벌한 분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열악한 병영 시설로 인하여 사병들은 지나치게 자기비하적(自己卑下的)이며 자학적인 사고에 젖어 맹목적이고 피동적이며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또한 지휘계통과는 별개로 음성적이고 자기비하적인 병영생활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결국 군대를 부정, 배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나 군대 문화의 전통 중에서 건전한 청년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과감히 활용하고 이와 같은 유산을 계속 발굴해 내야 할 것이나, 추한 한국인의 성격을 형성시킨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유산이나 군대 내의 관행 중에서 고질적인 부조리 문화는 근원적인 생활 교육을 통해서 청산해야 한다.

V. 결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는 그들을 모집하여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급여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는 모체사회의 대리인(representative)이다. 제도로서의 국방조직인 군대는 국가의 통제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사회이다. 따라서 사회의 계(階)요소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전체사회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민군관계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변화는 군의 존재양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성격을 변모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방리더십은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립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

민군관계의 변화와 현대군대의 성격변화를 고려할 때 국방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원리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민간통제의 리더십은 민·군 간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나 갈등요인 더 나아가서 정권차원의 정치적불신이 없도록 정교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다음 사회적 측면에서 국방리더십은 군과 사회에 모두 유익한 방법으로 (1)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선진민주주의 군대를 이룩하며, (2) 군·사회관계의 적합성(adaptability)을 발전시키고, (3) 리더십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조직원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통합적인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4) 민·군 간의 모순된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와 군대문화를 조화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의 병영문화와 사회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상승작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자료-

- 김경동의, 1984. 국민의식함양과 군의역할에 관한연구(현대사회연구소)
- 김영종, 1990, 「사회학개론」, 서울.형설출판사.
- 김번웅·김동현·김판석, 1997 한국행정개혁론(법문사).
- 김양호·이승영 역., 1997. 「성공한리더·성공하는 리더십」, (경향신문사).
- 손수태, 1998,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와 사회」, 서울.아카데미북.
- 이문조·손기웅. 1995 환경보호 활동을 통한 군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방안, 「국방학술논총 9집」, 서울 국방연구원.
- 이장현외, 1982, 「사회학의 이해」, 서울.법문사.
- 오석홍, 1990, 「조직이론」, 서울.박영사.
- 윤종호, 2005, “한국의 문민통제제도 합리적 실천방향”, 「군사논단 제43호」, 한국군사학회
- 유재갑, 1984, “군의 엘리트화와 교육”, 「국제문제」.
- 육군사관학교, 한국의군인상(1983).
- 오라툰데 오데틀라. “군부 정권과 발전”, 고려대 정치외교학회 편역, 「군부 정치」(서울 인간사랑, 1990)
- 유명덕, 2006, “장병의 성장을 디자인해주는 군 리더십”, 「월간자유」 재향군인회(성우회).
- 조지프프리드먼·메르테스프리드먼/권재상, 2001, 「전쟁의미래」, 경기·고양 도서출판자작
- 한완상, 1991, 「현대젊은이의 좌절과 열망」 서울:배영사

-외국자료-

- Charles C, Moskos, 1977 · 1986, *"From Institution to Occupation : Trends in Military Organization"*. *"Institutional / Occupational Trends in Armed forces"* Armed Forces & Society (4 · 12).
- Donald F. Bletz, *Military Professionalism*(Military Review, Vol. 51, 1971).
- Das Militarische Wei buch Deutschlands(1994), spalte 701, 705
- David Chuter, *Defence Trans formation* (Monograph 49, August 2000).
- Eric A. Nordinger, *Soldiers in Politics ·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 1977)
- George Friedman and Meredith Friedman, *The Future of War*(1996)
- Headquarters of Department of U.S. Army, 1978. A Review of Edcation and Training for officers (RETO), Washington D C.
- Informationsmappe Zuur Innere Führung in der Bundeswehr (Bonn Fus12, 1990)
- Jacob W.Kipp, *"Civil-Military Relat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Military Review (Dec 1992).
- Jean Lipman-Bluman, *The Connective Edge : Leading in an interdependent world*, Jossdy-Bass Publishers San Francisco, U.S.A, 1996
- J.P.Lovell, *"Military Dominated Regimes and Political Development · Critique of some Revisionist View"*, in

- Palmer and Stern (eds.), *Political Development in changing societies* (London : Health Lexington, 1971).
- Kohn, *How Democracies control the Military*.
- Lucian W.Pye, "*Armie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Development*", John J. Johnson(eds.), *The Role of Military in Developing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Morris Janowitz, *Sociology and the Military Establishment* (Beverly Hills / London : Sage Pub. 1974).
- Maj. Peter J. Podbieski, *Military Education Reforms*, U.S. Army (Dec. 1990).
- Samuel P Huntington, 1957, *The Soldier and State :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CambridgeMass . Havard Univ. Press
- Sheila Sues Kennedy Laura S. Jensen, *Outsourcing Patriotism Privatization Goes to War*, PA Times (September 2004)

Civil-Military Relations and Military Leadership

Sohn, Soo-Tae

Now it is not useful the theory about civil-military relationship that have been analysed for power game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s

Korean society is going on governance society managed by cooperating network of government, civilian society and business market These social change require for new context about civil-Military relationship.

Military leadership must contribute desirable civil-military relationship This study will suggest the direction about military leadership for desirable civil-military relationship.

Now political issues about military intervention to the government are almost settled, but the worry about complication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s exist in the part of low issues like policy-making.

Another important issues is military leadership about the style of social-being. In recent years, social change is very complex and speedy like global networking and diversity, leadership environment also, changed like leadership paradigm shift.

Military leadership must be examined from the principle to the context of social integration

At the present age, individual soldier is citizen in uniformed.

Also military leadership must to seek the principle in the citizen mind like citizenship.

Another characteristics of present day military is influence of high technology.

For the high-tech war military need the transition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whole society.

In the context of above the development of military leadership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military control leadership must be sought to the context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ilitary. Government must provide the system to strengthen military professionals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about national security

Second, military leadership must embody the important social values through the advanced military making,

Third, military leadership must provide the adaptability to the society through the military education of their soldiers

Forth, military leadership must be contribu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and to the growing up individual soldiers like their socialization and their achievement.

Five, an important subject of military leadership is the creation of desirable military culture through the harmony of social culture and military culture.

Key Words · governance society, the principle to the context of social integration, citizen in uniformed, important social values, advanced military making, the creation of desirable military culture